

쉬운 우리말을 쓰자

2023년 겨울호

- 한글 간판이 보고 싶어요
- 우리말약칭제안모임
- 쉬운 공문서 쓰기
- 만화로 보는 쉬운 우리말
- 쉬운 우리말 사전
- 2023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쉬운
우리말



신문처럼 외국어 적으면 곤란합니다.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오래전부터 신문에서는 외국 용어를 다루는 방식이 외국어 표현과 표기 위주로 흘러버렸습니다. “인공 지능(AI) 적용 분야가 나날이 넓어지지만, 국내 업체들의 대화형 AI 개발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처럼 처음에는 우리말 용어 뒤 괄호 속에 영문 표기를 넣고 그 다음부터는 영문 표기만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글쓰기 방식은 공문서에 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만일 이게 영문이 아니고 한자 표기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나라의 갈등(葛藤)은 고조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葛藤을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은 계속된다.”처럼 국한문혼용이 되어버립니다. 한자어는 그나마 발음이 같지만 ‘에이아이, 알앤디’ 등의 영문 용어는 발음과 표기가 우리말 용어와 모두 달라 당연히 소통에 어려움을 줍니다.

방송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기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에이아이’라고 말하는 기자가 있고 ‘인공 지능’이라고 말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고 말하는 기자가 있고 ‘전화금융 사기’라고 말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우리말 위주로 기사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어 용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하는 기자들은 왜 그럴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꼭 국어기본법 때문에 꺼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소통 문제니까요. 좀 더 편리한 소통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희나리

희나리는 채 마르지 않은 장작이라는 뜻으로
겨울과 관련된 아름다움을 소박하게 표현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 준 희나리가
완전히 마른 장작보다 더 오래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옛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말은 마치 희나리 같습니다.
예로부터 너무 흔해 소중하다는 걸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은은하게 제 한 몸 불사르는 모습이 말입니다.

한글문화연대는 우리말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희나리처럼 오래도록 밝고 환하게 타오르겠습니다.





생각 더하기

06

생각하다

올드 대신 청년
- 김정희

08

바라보다

70대 노인의 좋은 죽음 이야기
- 고현중

10

경험하다

여기 한국 맞죠? 한글 간판이 보고 싶어요
- 강민주, 김민지, 안지연, 윤혜린, 이성민

14

전하다

'우리말약칭제안모임', 국제연합(UN)에 도전하다.
- 김동범



우리말 이해하기

18

쉬운 공문서 쓰기

공문서,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이해하기도 쉽다
- 서현정

22

공모전 입상수기

"엄마, 태그리스 게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 서현정
행복함을 주는 단어 선택 - 황규희

26

공모전 입상영상

외국어 공공언어, 모르겠어요! - 미소
철장 3일: 일상생활 속 외국어 남용 - 동덕여자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재미있는 한글 마당

28

만화로 보는 우리말

심장을 살리는 쉬운 말. 자동심장충격기
- 최솔

34

영상으로 보는 쉬운 우리말

쉬우리와 함께 알아보는 쉬운 우리말!

36

아리아리 새말대모험



사례 나누기

38

사례 살펴보기

쉬운 한글로 쓰기, 소통과 배려의 시작 - 김태경

40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주역 'G 주차구역'을 우리말로 개선하다 - 신수호

42

쉬운 우리말 기자상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 쓴 기자 16명 선정

44

쉬운 우리말 사전

기관 누리집에 '쉬운 우리말 사전' 무료로 설치하세요

우리말 바꾸기

46

2023 새로 다듬은 말

48

2023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50

국립국어원 및 전국 국어문화원 연락처

51

우리말 책소개



알기 쉬운 우리 새말

올드 대신 청년년



김정희(한글문화연대 기획위원)

알기 쉬운 우리 새말

올드 대신 청년년



이번에 새로 다듬은 외국어 신조어 ‘올드’는 마치 갈라파고스 섬의 생물 같다. 애초 바다 건너에서 들어왔으나 어느새 다른 육지나 섬에서는 모두 멸종하고, 오로지 갈라파고스에서만 살아남은 희귀 생물. ‘올드’ 역시 해외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전해졌으나, 현재 그 어느 나라에서도 용례를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우리 언론에서만 종종 쓰이니 말이다.

‘올드(YOLD)’란 ‘young old’를 줄인 말이다. 우리말샘 사전에 따르면 “노령기에 접어든 베이비 붐 세대로 이루어진, 65세부터 75세 사이의 노인층을 이르는 말”이다. 즉 ‘젊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우리 언론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2019년 11월 <아주경제>에서다. 당시 기사는 “일본 사람들은 곧잘 일본식 영어를 만들어 역수출하는 재주가 있다. 가라오케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올드 역시 이 같은 일본식 영어”라고 소개하고 있다. 올드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사회적 배경 역시 언론의 용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은퇴 후에도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능동적 소비 주체로 급부상한 베이비붐 세대인 ‘올드’는 투자나 여가 활동 등에서도 이전 세대와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미래지향적이고 트렌디하다.”(<서울신문> 2023년 3월) “젊게 살려는 노년층의 욕구가 ‘올드’의 유행을 몰고 왔지만 청춘처럼 즐기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한다.”(<이데일리> 2022년 10월)

그러니까 올드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젊은이 못잖게 강한 경제력과 적극성으로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이들의 등장을 주목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세계경제대전망’에서 앞으로 이들 세대가 항공·여행·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서 중요한 고객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또한 <포브스>도 2020년 1월에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Old Lang Syne)’을 살짝 비틀어 ‘올드 랭 사인을 들어보자(Let’s Hear It for Yold Lang Syne)’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들을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반짝 주목받은 뒤로 영어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다. ‘yold’를 검색해 보면 사전에 등장하는 한다. 근데 그 뜻이 ‘잘 속는 사람, 멍청이’라는 속어다. 자칫 잘못 사용했다가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영어 사용자들이 단어 뜻을 자유롭게 유추해 올리는 공개 영어사전 ‘urban dictionary’에도 ‘올드’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젊은 노인’이라는 뜻과 반대로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척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을 뿐이다. 올드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냈다는 일본에서는 어떨까? 역시 구글에서 일본어 ‘올드(コールド 혹은 コルド)’를 검색해 보아도 위 의미로 쓰인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갈라파고스섬의 생물처럼 우리나라에서만 끈질기게 유통되는 ‘올드’를 대체할 새말로 어느 표현이 좋을까? 새말 모임 논의에서는 이들의 물리적 연령대를 가리키는 ‘노년(노인)’이라는 말과, 이들에게 새로이 부각된 ‘젊다’는 성격을 결합한 용어가 주로 후보군에 올랐다. ‘젊은 노년’ ‘젊노인’ ‘청노인’ ‘청노년’ ‘풋노인’ 등이다. 이채롭게는 “은퇴를 했지만 경제력을 갖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금퇴족’이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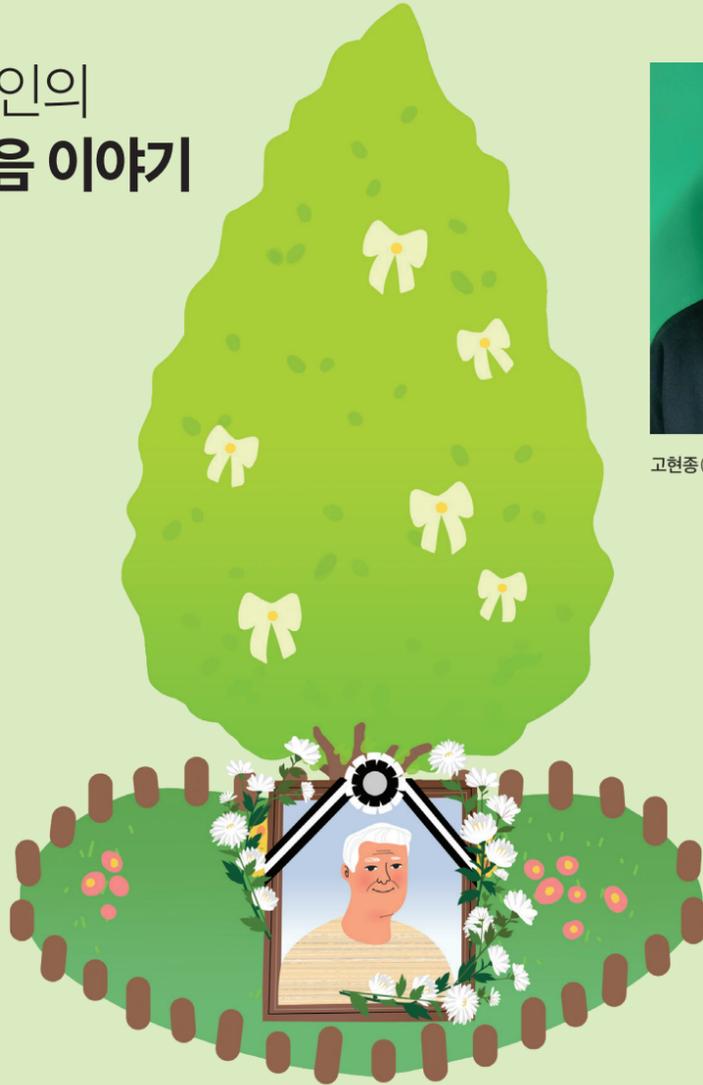
그 중 ‘젊은 노년’이란 표현이 가장 개념을 충실하게 설명한 용어이긴 하지만 말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 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젊노인’ ‘젊노족’ ‘청노년’ 세 가지가 최종 후보로 압축되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청노년’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어 새말로 최종 선정되었다.

새말 모임에서 그간 다룬 외국어 신조어 중에는 기존 언론 등에 이를 대신할 만한 우리말 표현이 제시된 경우가 적지 않다. 혹은 신조어가 들어오기 전 이미 쓰이고 있던 우리말을 되살려낸 예도 있다. 하지만 ‘올드’의 경우 그런 용례가 소개된 바 없다. ‘청노년’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 탄생한, 그야말로 ‘새말’이다. 언론의 용례로는 경남도청에서 배포한 홍보 자료에 “청노년이 다같이 함께하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청년과 노년층이 함께하는’는 뜻으로 쓰인 경우였다.

이렇게 기존에 쓰인 적이 별로 없는 ‘청노년’ 같은 ‘진짜 배기 새말’은 용례가 있는 경우보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을 터이다. 더욱더 사용자들의 애정이 필요하다. 아낌없이 써주자. 새로운 우리말이 어서 빨리 든든히 자리 잡고 쑥쑥 커나갈 수 있도록. 🌱

※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래 ‘다듬을 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새말’로 다듬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어, 언론, 통번역, 문학, 정보통신, 보건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모임을 꾸리고 있다.

70대 노인의 좋은 죽음 이야기



고현종(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노인들과 대화할 때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하거나 이 점을 기억해 두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당신처럼 유리한 입장에서 있지 않다는 것을. 신용희(73세) 씨가 세상에 던지는 불평이다.

신용희 씨는 얼마 전 딸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요즘 노인들 많아지고 하니까 웰다잉이 대세야.

엄마도, 건강할 때 준비 좀 해”

“나,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 운동하라는 말이 아니고 웰다잉이라고”

“웰... 뭐라고?”

“엄마는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딸의 큰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 더는 묻지 못하고 알았다고 했다.

웰다잉이 뭐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하면 안 되나. 2023년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이다. 2070년에는 46.4%로 전체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되면 익숙한 단어나 말도 잘 들리지 않는데 외국어를 남발해서 소통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신용희 씨가 웰다잉(well-dying)을 이해한 것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면서다. 노인 일자리 참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구청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갔다. “70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담당 주무관은 “시니어클럽(senior club)으로 가세요. 거기에 일자리가 많아요.” “어디요?” “시니어클럽이요.” “노인 일자리를 찾는데 무슨 사교클럽을 가보라고 하면 어떡해요!”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하는 곳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라고 하면 될 것을 시니어 클럽이라는 외국어를 써서 신용희 씨를 당황하게 만들고 주무관과 언성을 높이게 했다.

신용희 씨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서 일하면서 소양 교육을 받았다. 소양 교육 주제는 웰다잉이었다. 딸에게 무시당했던 그 웰다잉.

신용희 씨는 교육이 끝나고 사회복지사에게 물었다. 웰다잉이 죽음을 잘 준비하자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알아듣기 어렵게 영어를 써야 하냐고.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영어를 섞어줘야 폼 나잖아요.”, “요즘 노래 가사도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웰다잉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을 의학적 치료에 의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국어사전에는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국어문화원연합회가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국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2%는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다. 가장 적절한 대체어로 품위사는 62.9%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존엄사는 47.3%로 나타났다. 다만 이 조사에서 주어진 선택지는 ‘품위사’, ‘존엄사’, ‘존중사’, ‘존경사’였기에 품위사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필자가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물어보았다. 웰다잉을 어떤 한국어로 바꾸면 좋을지. 어떤 말로 표현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은 품위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절이 생각나.” “무슨 주식회사 같은데.” “품위사도 결국 한자어잖아. 생소해.”

노인들은 품위사보다는 좋은 죽음, 평온한 죽음이 이해하기 쉽고 입에도 잘 달라붙는다고 했다. 좋은 죽음, 평온한 죽음은 죽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이런 표현은 사람들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신용희 씨는 웰다잉이라는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자신을 책망했다.

“나만 못 난 것 같고, 무식이 탄로 나는 것 같고, 창피해서 몰라도 아는 척 고개를 까딱이지.”

노인들은 아파트 이름에 외국어가 많이 등장하는 게 부모들이 집을 잘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농을 건넨다.

신용희 씨는 필자와 함께 웰다잉을 대체하는 한국어를 고민하면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 사람이 외국어 모르는 거 당연한 거지. 외국어를 한국어를 바꿔 말 할 수 있는 게 더 큰 능력이지.”

자신은 웰다잉을 ‘좋은 죽음’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좋은 죽음의 핵심은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장기와 시신 기증은 할 것인가. 장례 절차,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 미리 정하는 것이다. 가족과 타인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가족 등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많이 하기, 소원한 사람과 화해하기,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전하기를 자신의 의지대로 실행하겠다고 한다.

신용희 씨는 여기에 좋은 죽음의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남은 생은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주눅 들지 않고 한국어를 사랑하는 당당한 세종대왕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이 또한 좋은 죽음의 핵심인 자신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





여기 한국 맞죠? 한글 간판이 보고 싶어요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10기 누리보듬 모듬
(강민주, 김민지, 안지연, 윤혜린, 이성민)

COFFEE		TEA	
	HOT ICED		HOT ICED
에스프레소 Espresso	3,000 3,500	허브티 Herb Tea	3,000 3,500
아메리카노 Americano	3,000 3,500	자몽티 Grapefruit Tea	3,000 3,500
카페라떼 Café Latte	5,000 5,500	레몬티 Lemon Tea	5,000 5,500
카페모카 Café Mocha	5,000 5,500	그린티 Green Tea	5,000 5,500
바닐라 라떼 Vanilla Latte	5,500 6,000	캐모마일 Chamomile	5,500 6,000
초코라떼 Choco Latte	5,000 5,500	페퍼민트 Peppermint	5,000 5,500
그린티라떼 Green tea Latte	5,000 5,500		
카푸치노 Cappuccino	5,500 6,000		
시나몬 모카 Cinnamon Mocha	5,000 5,500		



Antipasti

Insalata Cesare 18,000
엔초비와 케이퍼, 레몬을 믹스란 드레싱에 에그, 그라노 파다노 치즈와 프로슈토칩을 얹은 로메인 샐러드

엔초비.. 케이퍼
프로슈토칩?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 앞, 50대 여성 두 명이 발걸음을 멈췄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가게 간판 이름을 천천히 읽어 내려간다. 엠제트 세대 유행을 좇아 이색 디저트를 맛보려고 방문한 연남동. 커피 한 잔 하려고 카페를 찾았지만, 읽기 힘든 로마자 간판 때문에 섣뜻 입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펠른’, ‘티크닉’, ‘플루밍’, ‘누크눅’, ‘세빠띠’... 모두 카페 또는 디저트 가게의 이름이다. 어느 나라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다.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간판 대부분이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외국어 발음을 그대로 적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로는 올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딸네가 종종 사다주던 디저트를 직접 매장에서 먹어보고 싶었다. 같은 나이의 친구 한 명을 데려와 함께 돌아다녔지만, 가게를 바로 앞에 두고 주춤할 수밖에 없다.

입구에 놓인 작은 메뉴판도 온통 로마자다. ‘크런치 아인슈페너’, ‘크렘드라크렘’, ‘오트슈페너’, ‘cortado’, ‘einspanner’... 심지어는 한글로 된 가게 이름을 로마자 표기로 바꿔 메뉴에 붙였다. ‘ZAKDANGMOI PLATE’, ‘Tiraamisu’, ‘ZAKDANGMOI Dacquoise’...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메뉴인지 알아보기도 힘들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 프랜차이즈 커피점으로 갔다. 동네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벅스’. 평소에 매일 마시는 아메리카노 대신 색다른 메뉴를 먹어보고 싶었다. 시원한 과일 음료에 구미가 당기는 날. ‘퍼플 드링크 워드 망고 용과 리프레서’, ‘레드 파워 스매시 블렌디드’, ‘브라운 슈가 오트 셰이큰 에스프레소’... 메뉴판을 훑다가 결국 평소와 같이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 라떼 한 잔을 주문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로마자로 된, 혹은 로마자를 한글 발음으로 표기한 이름 때문에 메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다.

외국 문자로만 적힌 간판... 사실상 위법?

카페와 식당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외국 문자, 특히 로마자로 적힌 간판들에는 사실 위법 소지가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법으로 이미 간판 속 한글 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외국 문자로만 적힌 간판이 수도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언급한 ‘특별한 사유’에서 찾을 수 있다. 2022년 발행된 옥외광고물 법령 해설집에 따르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외국 문자로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할 경우에는 외국 문자만 쓰인 간판을 걸어도 위법이 아니다. 대다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에 해당하므로 그만큼 쉽게 외국 문자로 된 간판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어떻게? 이 경우에는 관리법 시행령 등을 적용하지만 복잡하고 세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이들을 제지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기에 사실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적힌 간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게 안 메뉴판까지도 한글로만 표기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연남동 카페 거리...로마자 간판 천국

서울에서도 로마자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연남동 카페 거리를 방문했다. 다음은 지난 9월 3일 로마자 간판을 단 연남동의 한 유명 카페에서 주인과 나는 이야기다.

1. 메뉴판에 로마자가 많은데 이유가 따로 있는가?
 - 연남동 거리에는 외국인 손님들이 많다 보니 메뉴명을 로마자로 적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아무래도 모든 직원이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다보니 티 메뉴가 로마자로 적혀 있으면 손님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안내하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2. 로마자로 된 메뉴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손님은 없는가?
 - 보통은 한국 사람들이 다시 묻는다. 예를 들어 우롱티의 경우 발음과 표기에서 차이가 있어 뭐냐고 다시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3. 만약에 메뉴판을 전부 한글로 바꾸면 어떨 것 같은가?
 - 아마도 이 거리에서 장사하려면 아예 한글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카페에는 고유의 톤앤매너(분위기)가 있다. 그러다 보니 변경했을 때 그런 감성적인 측면도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해당 카페는 간판뿐 아니라 메뉴판마저 전부 로마자로 적혀 있어 아주 간단한 주문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손님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은 해당 카페에서 로마자로만 표기된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망설이던 한 대학생과의 일문일답이다.



1. 전부 로마자로 적힌 메뉴를 보았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었나?
 - 어떤 메뉴부터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해당 메뉴가 무슨 메뉴인지 파악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주문 하기가 어려웠다.
2. 메뉴판을 전부 한글로 적으면 어떨 것 같은가?
 - 메뉴에 대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올 것 같고 로마자로만 적힌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외국인 손님들도 있을 수 있어 전부 한글로 적기보다는 한글 표기를 위주로 하되, 괄호 안에 로마자를 병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3. 프랜차이즈 카페의 메뉴 이름을 보면 어떤 메뉴인지 한 번에 짐작이 가능한가?
 - 초코, 스무디, 프라페 등의 단어는 아무래도 여러 카페에서 사용하는 메뉴이다 보니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 외에 새로운 메뉴들 이름에 장황하고 어려운 단어들 섞여 있을 경우에는 짐작하기 어렵고 무슨 맛일지 상상이 전혀 안 가는 경우도 많다.

해당 카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간판과 메뉴판 전부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있었다. 카페 측은 외국인 손님 유치와 카페의 위치적 특성을 이유로 로마자 표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로마자로만 모든 것이 적힌 가게는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한글 표기가 꼭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로마자 간판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의 인식은 어떠할까? 정재철 '공차' 신촌연세로점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1. 'Gongcha' 대신 한글로 '공차'라고 간판을 바꾼다면 어떨 것 같은가?
 - 중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자국어만 반드시 일정 크기로 적고 소수민족 언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 매장처럼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상점은 영어로 된 간판이 필요하니 한글 간판 아래 영어로 적어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2. 음료 이름이 어려워서 주문에 곤란함을 겪는 손님은 없는가?
 - 대한민국처럼 영어교육에 열을 올리는 나라도 많이

- 없다. 젊은 층에서는 영어 사용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크게 지장이 없다. 다만 노년층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경우 우리 매장에서는 보통 음료의 특색이나 맛을 설명해 고객의 이해를 돕는다.
3. 만약 사장님은 음료 이름을 한글 표기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의향이 있는가?
 - 한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자칫하면 제품의 가치가 낮아져 보이거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세련되며 제품과 브랜드에 맞는 한글 어휘를 찾아낸다면 한글로 바꿀 의향은 있다.
 4. 향후에도 음료 이름이 외국어로 작명되거나 로마자 표기로 출시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스무디를 어찌 한국어로 표기해야 할까? 대중화된 한국어 대체어가 없다. 결국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야 하는데, 외국어를 사용해야 이해가 빠르다면 결국 외국어를 써야 한다. 과도한 외국어 사용은 물론 큰 문제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한국어 사용 강제도 문제를 야기한다.

이 밖에도 정 사장은 “과도한 로마자 사용은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외래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복합적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니 한글과 로마자가 함께 사용되는 것에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본인과 같은 자영업자들 스스로 제품과 홍보 부분에서 세련되고 유려한 한국어 표현을 찾고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태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이미 법령으로 한글 간판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는 있지만, 대형 가맹점이라면 외국 문자로 표기된 간판에 한글을 병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큰 의미가 없다. 거리에는 소상공인의 가게뿐만 아니라 외국계 대형 가맹점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만을 규제하는 것은



시행령의 원래 취지에 벗어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 가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 모든 이가 평등하게 알게 하려면 외국 문자로 된 간판에도 똑같이 한글 표기를 적용하도록 규제를 바꿔야 한다.

메뉴판 또한 간판과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 아무리 간판에 한글이 병기되어도, 가게에 들어서서 본 메뉴판에 한글이 없다면 발길을 돌릴 손님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간판과 메뉴판에 한글을 쓰게 하는 목적은 어떤 손님든 똑같이 가게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에도 한글 표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소비자도 우리말보다 영어를 더 자연스럽게 떠 있다고 여기는 태도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흔히 영어 간판이나 메뉴판을 보고 '감성 있다'라고 평한다. 그 '감성'은 영어를 쓸 때만 얻을 수 있는 느낌인지, 한글로 표기하면 사라지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처음의 50대 여성들에게로 돌아가 보자. 과연 그 둘만이 영어로 된 간판과 메뉴판에 곤혹을 느꼈을까? 그렇지 않다. 인터뷰 결과, 영어로 된 간판과 메뉴판을 어려워한 경험은 손님의 나이와 브랜드의 인지도에 상관없이 모두 존재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앞선 두 여성처럼 가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읽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 말고도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필요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거리의 간판에서 한글을 보기 쉬워질 것이다. 🐦





UNESCO 유네스코, 유엔교육문화

‘우리말약칭제안모임’, 국제연합(UN)에 도전하다.

김동범 (한글문화연대 연구원)

UNKRA 한국재건단

UNFF 유엔산림

UNFCCC 기후협약

UNFPA 인구기금

WFP 유엔식량

국제연합은 전 세계 193개국 이 가입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며 성공적인 국제적 연합 조직이다. 193개국 중 하나인 한국의 역사는 국제연합과 떼려야 뗄 수 없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국제연합에 도움을 받았으며,¹⁾ 더불어 이 사건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국제연합에도 집단안보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오늘날 한국과 국제연합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취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이 국제연합에 납부한 분담금은 1조 원이 넘는데, 이는 193개국 중 9번째에 해당한다. 유엔 산하 조직은 한국의 경제, 사회, 외교, 문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부 및 언론은 유엔 산하 조직의 이름을 지면상의 이유 등으로 로마자 약칭을 주로 사용한다. 이에 ‘우리말약칭제안모임’은 국제연합과 25개 산하 관련 조직의 우리말 약칭을 만들기 로 결정했다. 한글로 표기된 우리말 약칭을 사용함으로써 시민과 언론·정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말약칭제안모임 : 우리말 약칭을 사용해야 할 필요에 공감하여 2023년 3월에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가 꾸린 모임. 국립국어원도 회의에 참여한다. 각 단체에서 추천한 기자 3명, 국어학자 3명, 국립국어원연구사 1명, 국어단체 2명 등이 연구위원회를 꾸려 매달 주요 국제조직 등의 우리말 약칭을 연구하여 제안한다. 약칭모임에서는 국제조직의 온 이름을 제대로 쓰길 권하지만, 시공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여 써야 할 때 우리말 약칭을 쓰라고 권한다.

국제연합은 평화와 안보,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인권, 양성평등 등의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관련 기구들의 숫자도 상당했다. 이 중 정부 및 언론 보도에 등장한 25개의 산하 조직을 추려내어 국제연합을 포함한 총 26개의 우리말 약칭을 만들었다.

국제연합 기관들의 우리말 약칭을 만들 때 우리말약칭위원들이 가장 고심한 부분은 ‘유엔’이라는 음차를 약칭에 포함할 것인지였다. 먼저, 해당 기구들은 유엔과 관련된 고유어 단체인기에 대체로 ‘유엔□□’라는 약칭으로 정하여 일반명사처럼 보이지 않도록 했다. 가령, ‘유엔산림포럼(UNFF)’의 우리말 약칭은 ‘산림포럼’이 아닌 ‘유엔산림’으로 정하였는데, ‘산림포럼’은 일반적인 산림 관련 단체와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경우, 우리말 약칭을 ‘인구기금’이라 정했다. ‘유엔’이라는 음차가 딱히 필요 없으며, ‘인구’와 ‘기금’의 의미가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고심한 부분은 이미 굳어버린 한글 음차 문제였다. ‘유엔’, ‘유네스코’, ‘유니세프’은 이미 많은 시민이 한글 음차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다른 기구들과 달리 ‘유엔’, ‘유네스코’, ‘유니세프’의 경우, 한글 음차는 살리되 우리말 약칭을 함께 병기하여 제시하기로 했다.

1) 오영달, 『1950년 한국전쟁과 유엔의 역할』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20)

7월부터 9월까지 총 세 번의 심의를 거쳐서 만든 유엔 관련 우리말 약칭들은 곧바로 전문어론조사기관 티앤오코리아에게 맡겨 수용도 조사에 들어갔다. 1,061명의 시민이 로마자 약칭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말 약칭을 얼마나 적절하다고 여기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말 약칭 2차 수용도 조사'를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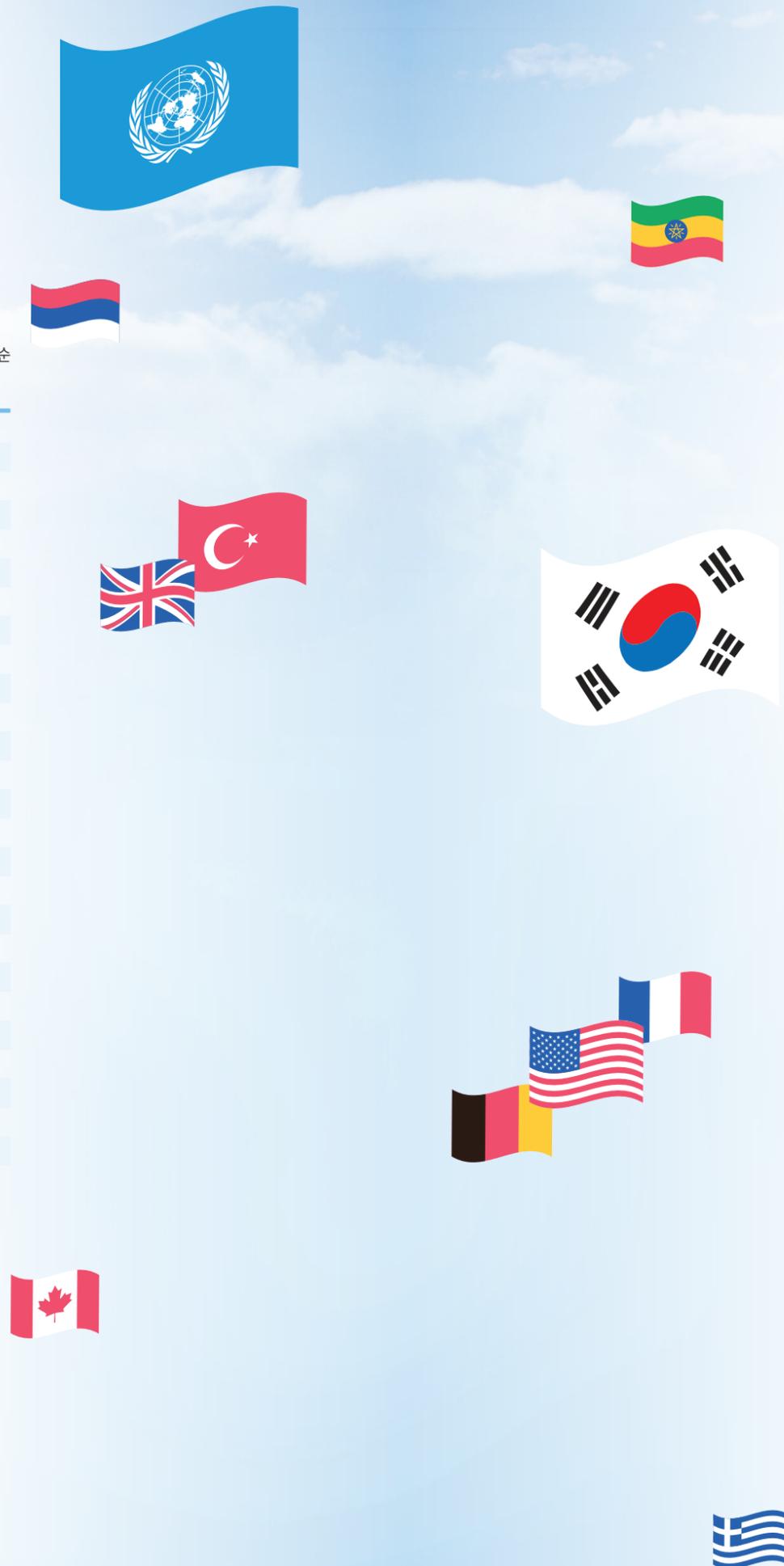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 관련 조직의 우리말 약칭 수용도

이름	로마자 약칭	인지도	우리말 약칭	수용도
국제연합	UN	82.3%	유엔, 국제연합	25.1%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72.0%	유네스코, 유엔교육문화	64.0%
유엔아동기금	UNICEF	42.8%	아동기금, 유니세프	73.4%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12.3%	식농기구	62.7%
유엔환경계획	UNEP	8.6%	유엔환경	83.0%
유엔개발계획	UNDP	8.3%	유엔개발	81.8%
유엔인구기금	UNFPA	7.4%	인구기금	71.3%
유엔산림포럼	UNFF	7.3%	유엔산림	79.0%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7.3%	유엔식량	74.6%
유엔난민기구	UNHCR	6.7%	난민기구	78.6%
유엔통계위원회	UNSC	6.7%	유엔통계위	81.3%
유엔한국재건단	UNKRA	6.1%	한국재건단	71.8%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6.1%	환경회의	73.7%
유엔훈련연구기구	UNITAR	6.0%	유엔훈련	68.2%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5.9%	사막협약	67.1%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	UNRWA	5.8%	팔난민기구	56.3%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5.4%	무역회의	74.2%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5.2%	아태경사위	52.1%
유엔군축연구소	UNIDIR	5.1%	유엔군축연	63.5%
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	5.0%	유엔산업	74.0%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4.9%	유엔상거래법위	78.7%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UNOPS	4.7%	조달기구	68.1%
유엔마약범죄사무국(사무소)	UNODC	4.7%	마약범죄국	73.6%
유엔협회세계연맹	WFUNA	4.7%	유엔협연	56.8%
유엔재난위험감사사무국	UNDRR	4.6%	유엔재난국	79.7%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4.3%	기후협약	80.2%

*인지도 순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UN(국제연합),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를 제외한 23개의 산하 조직의 로마자에 대한 평균 인지도는 6.2%로, 시민 100명 중 약 6명만이 국제연합 관련 로마자 약칭을 알고 있었다.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낸 조직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였다. UNFCCC가 어떤 조직/단체인지 알고 있다고 답한 시민은 100명 중 약 4명 정도에 불과했다. 최근 환경 관련 문제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자주 거론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언론에서 남발하고 있는 로마자가 시민의 알 권리를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평균 100명 중 약 70명이 우리말 약칭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69.7%로 많은 시민에게 긍정적 반응을 들었다. 다만 국제연합(UN)을 예전에 자주 사용하던 약어인 '국련'으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를 '아태경사위'로,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를 '팔난민기구'로 바꾸자는 제안은 다른 우리말 약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용도를 보였다. 이는 주요 단어의 머리글자만으로 약칭을 지은 영향이라 분석된다. 특히 '국련'은 비록 수용도는 낮지만, 과거에 사용하던 약칭인지라 살려두기로 했다.

우리말약칭제안모임은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말 약칭을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월과 12월에는 중앙행정기관이 모여있는 세종시에서 버스 외부 광고, 버스 음성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각종 언론사와 보도국이 모여있는 광화문역, 서대문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지하철 광고를 시행하기도 했다. 처음엔 모두 낯설지만, 차츰 언론과 국민에게 가까워지고 친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버스 광고



서대문역 지하철 역사 광고





공문서,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이해하기도 쉽다(2)

서현정 (세종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문장 표현을 바르게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문장을 살펴보면 문장 성분 사이에 호응이 잘되지 않거나 필수적인 요소를 생략한 문장이 많습니다. 또 문장 속의 구나 절이 대등하지 않게 연결되거나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하여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공문서에 사용된 문장 사례를 보면서 문장이 어색하거나 뜻이 모호한 이유와 수정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 경기장 운영은 2025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장은 20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장 운영은 2025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문장에서 ‘착공’할 대상은 ‘경기장 운영’이 아니라 ‘경기장’이므로 주어를 ‘경기장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바르게 수정하면 ‘경기장은 20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무더위 쉼터는 주민센터, 경로당, 야외 쉼터 등 125곳을 마련했다.

▶ ○○구는 주민센터, 경로당, 야외 쉼터 등 125곳을 무더위 쉼터로 마련했다.

‘무더위 쉼터는 주민센터, 경로당, 야외쉼터 등 125곳을 마련했다.’라는 문장에서는 ‘무더위 쉼터’가 쉼터를 마련한 주체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으므로 ‘○○구는 올 여름 주민센터, 경로당, 야외쉼터 등 125곳을 무더위 쉼터로 마련했다.’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둘째,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 이번 현장 행정에서는 산책로 등을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 ‘영유아 ○○○○ 프로그램’은 또래들과 이색 체험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키우고, 집중력과 호기심 자극 등 아이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이번 현장 행정에서는 산책로 등을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 ‘영유아 ○○○○ 프로그램’은 또래들과 이색 체험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집중력과 호기심 자극 등 아이들의 인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현장 행정에서는 산책로 등을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했다.’라는 문장은 ‘작업을’ 뒤에 ‘실시했다’라는 서술어가 사용되어 호응이 되지 않아 의미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업을 실시했다’라고 하거나 ‘작업이 실시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영유아 ○○○○ 프로그램’은 또래들과 이색 체험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키우고, 집중력과 호기심 자극 등 아이들의 인지능력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발달시키고’라는 서술어와 호응하려면 ‘사회성 발달’을 ‘사회성을’로 고쳐야 합니다.

셋째, 수식하는 말과 수식을 받는 말의 호응이 되지 않아 어색한 문장 사례도 있습니다.

▶ 주택에 3kW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5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9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줄어 6만 원을 절감하게 된다.
▶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하고 있다.

▶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사용량이 5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9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줄어 6만 원을 절감하게 된다.
▶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택에 3kW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5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9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줄어 6만 원을 절감하게 된다.’라는 문장에서 ‘주택에’와 ‘태양광 설치를 통해’는 서로 호응하지 않습니다. ‘주택에’와 호응하려면 ‘태양광을 설치하면’과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하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다각적’이라는 말은 ‘노력하고 있다’를 수식할 수 없으므로 ‘다각적으로’와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넷째,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대등하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와 구, 절과 절이 연결될 때에는 서로 대등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 ▶ ○○업체는 **사업 기간 단축과 민원을 최소화해**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 ○○업체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을 최소화해**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업체는 사업 기간 단축과 민원을 최소화해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에서는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명사구와 ‘민원을 최소화해’라는 절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체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을 최소화해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생략되면 뜻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문장의 필수 성분이나 조사를 과도하게 생략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상품을 **지급하며** 1년 이내 중복 당첨자는 상품 지급에서 제외된다.
- ▶ **당첨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상품을 **받으며**, 1년 이내 중복 당첨자는 상품 지급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상품을 지급하며 1년 이내 중복 당첨자는 상품 지급에서 제외된다.’에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상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문장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문장의 주어인 ‘당첨자’를 써야 합니다. 바른 문장으로 수정해 보면 ‘당첨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후 상품을 받으며, 1년 이내 중복 당첨자는 상품 지급에서 제외된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 반지하 주택 및 상가에 침수 방지 **시설** 지원한다.
- ▶ 활동을 희망하는, **○○구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다양한 분야 교육 제공이 가능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 ▶ 반지하 주택 및 상가에 침수 방지 **시설을** 지원한다.
- ▶ 활동을 희망하는,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다양한 분야 교육 제공이 가능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주택 및 상가에 침수 방지 시설 지원한다.’, ‘활동을 희망하는, ○○구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다양한 분야 교육 제공이 가능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조사를 과도하게 생략하면 어색한 문장이 되므로 ‘반지하주택 및 상가에 침수 방지 시설을 지원한다.’, ‘마을 교육에 관심이 있고 활동을 희망하는,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제공이 가능한 전공, 경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미 분야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와 같이 조사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

여섯째, 조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 ▶ ○○군이 글로벌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 산업으로의 메카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 ○○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대책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 ▶ ○○군이 민선 글로벌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 ○○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대책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이 글로벌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 산업으로의 메카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에서는 조사 ‘의’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어 문장이 어색합니다.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서’와 같이 수정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대책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에서 조사 ‘으로부터’는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는 격 조사로서 ‘재난으로부터’는 ‘대응하기 위한’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재난으로부터’는 ‘재난에’로 수정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일곱째, 어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뜻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 ▶ 댐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집중호우 시 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고**, 하류지역 5개 시·군 1,250명이 신청한 500억 원에 대한 환경 분쟁 조정 결과, 신청액의 30%인 150억 원만 배상됐다.
- ▶ 댐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집중호우 시 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지만**, 하류지역 5개 시·군 1,250명이 신청한 500억 원에 대한 환경 분쟁 조정 결과, 신청액의 30%인 150억 원만 배상됐다.

‘댐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집중호우 시 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고, 하류지역 5개 시·군 1,250명이 신청한 500억 원에 대한 환경 분쟁 조정 결과, 신청액의 30%인 150억 원만 배상됐다.’라는 문장의 뒤 절에서는 앞 절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 절의 ‘입었고’를 ‘입었지만’으로 수정하면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틀린 사례들을 살펴보면, 문장의 표기, 표현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른 표기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전이나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어문규범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장 표현과 관련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뿐 아니라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의 뜻풀이와 용례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국립국어원과 전국 국어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국어 상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바른 표기와 표현에 대해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으뜸상 서현정

“ 엄마 ,
태그리스 게이트가
무슨 뜻이예요 ? ”

얼마 전,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아이와 함께 경전철을 이용했을 때였다. 교통카드를 꺼내 개찰구에 찍고 들어가려는데, <태그리스 게이트>라고 쓰여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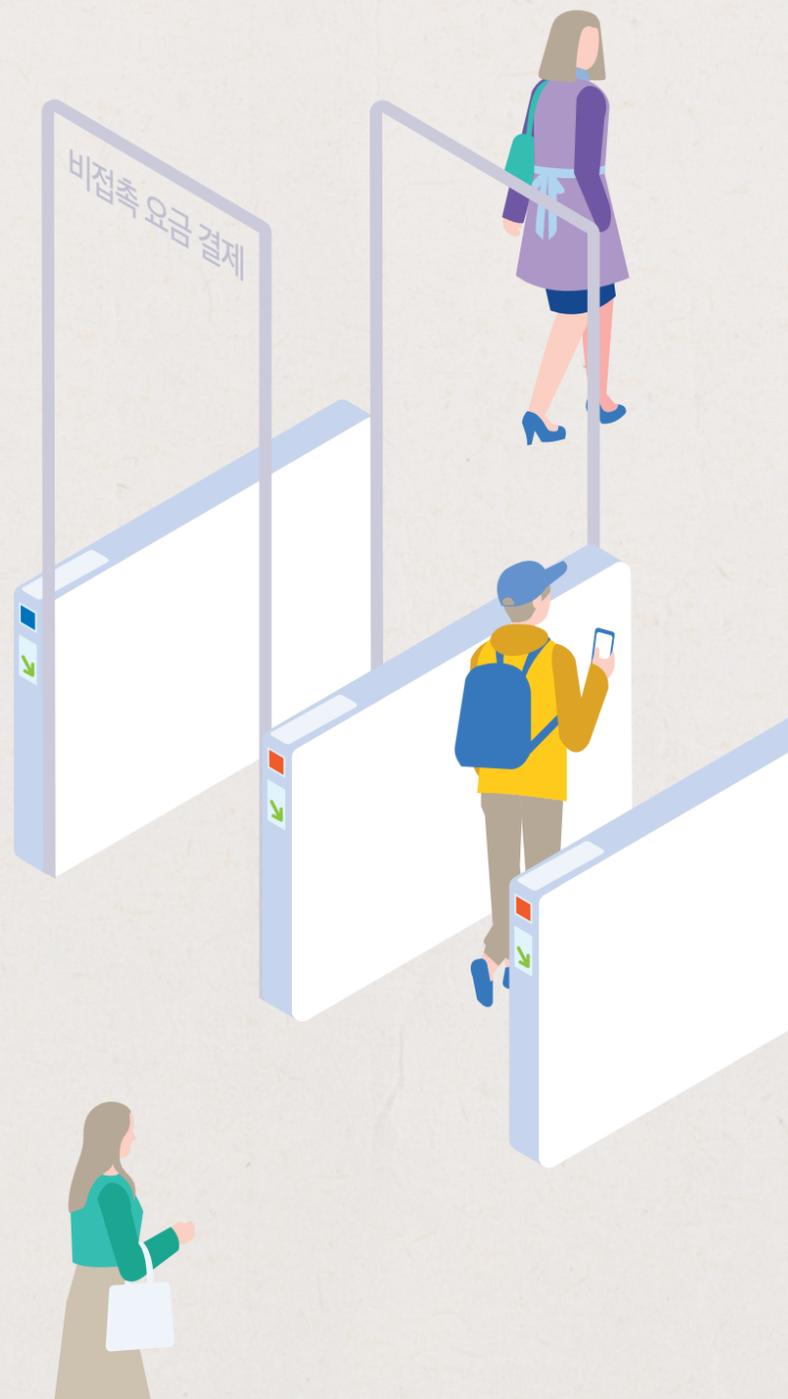
딸아이는 그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엄마, 저기 적혀있는 태그리스 게이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예요?”라고 내게 물었다. 한글로 ‘태그리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직관적으로는 카드를 찍지 않는다는 뜻 같았는데, 나도 정확한 뜻을 몰라 그 자리에 서서 고개만 갸웃거렸다.

그때였다. 한 대학생이 우리가 서 있던 태그리스 게이트로 들어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그대로 개찰구를 쓱 하고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서도 나는 아직 태그리스 게이트라는 용어의 뜻이 정확히 이해되진 않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는 역무원이 보여 그쪽으로 다가가 “저기, 태그리스 게이트라는 게 무슨 뜻이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역무원은 “번거롭게 직접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에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구간처럼요!”라고 설명해주었다.

역무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태그리스가 ‘비접촉 요금 결제’를 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국민 중 태그리스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다.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고안해 낸 정책에 굳이 뜻을 알기 어려운 외국어 명칭을 왜 붙이는데도 저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편, 역무원은 경전철에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 태그리스 게이트가 없는 곳에서 내릴 때는 기존의 엔에프시(NFC)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면서 “휴대전화에



터머니 앱을 설치한 뒤에 카드를 등록하고, 블루투스 모드를 켜놓으면 돼요.”라고 덧붙여 설명해 주었다.

분명 역무원은 내게 사용 방법까지 친절히 설명해 주었지만, 이번엔 엔에프시(NFC)라는 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중 통신기술을 표현하는 약자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딸과 함께 지하철에 오른 나는 엔에프시(NFC)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 찾아보았다. 아주 짧은 거리에서 이뤄지는 비접촉식 통신기술을 일컫는 말이었다. 엔에프시(NFC)라는 로마자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심지어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였다.

엔에프시(NFC)의 의미를 알려주자 딸아이는 “엄마도 모르는 외국어를 저 같은 어린이가 어떻게 이해해요?”라면서,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바람을 밝혔다.

나 역시 딸아이와 생각이 같았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교통카드를 직접 찍지 않도록 한 것은 분명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선진적인 정책이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정책인 만큼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알아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태그리스 게이트>라는 어려운 외국어 대신 <비접촉식 결제 구간>이라는 우리말 표현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역을 둘러보니 생명과 연관된 기구들에도 뜻을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전기제품은 ‘HEART ON AED’라고 적어 놓았고, 자동제세동기를 ‘AED’라고 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생명과 직접 연관된 공공언어이고 이해도가 떨어지면 안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표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딸아이에게 말해주었다.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딸아이는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다. 알고 보니 지하철공사 누리집에 접속해 지하철 내에서 사용하는 공공용어에 외국어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고 있었다. 기특한 마음에 나는 딸아이와 눈을 맞추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최근 공공언어에 어렵고 생소한 외국어 용어가 쓰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경험하곤 한다. 물론 외래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내용보다는 겉치레를 중시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 때가 많다.

공공장소에서 쓰는 공공언어를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는 일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공공장소에서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딸아이의 행동은 비록 작은 날갯짓에 불과하지만, 이런 노력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현재 공공언어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외국어들이 언젠가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23년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버금상 황규희

“	행	복	함	을	주	는	”
	단	어	선	택			

지난 3~4년간은 대혼돈의 시간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 친구, 가족과의 식사는커녕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으며, 갑자기 찾아온 전염병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나는 이 모든 시간을 겪게 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었던 여러 역학조사원 중의 한 명이었다.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일했던 나는, 우리가 담당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였을 때부터 십만 명이 넘을 때까지 일했다. 능동 및 자가격리자 통보부터 확진자 동선 역학조사, 위중증 환자 이송을 위한 간호력 확인 등 다양한 절차를 진행해오면서 외국어 사용으로 불편했던 몇몇 사례들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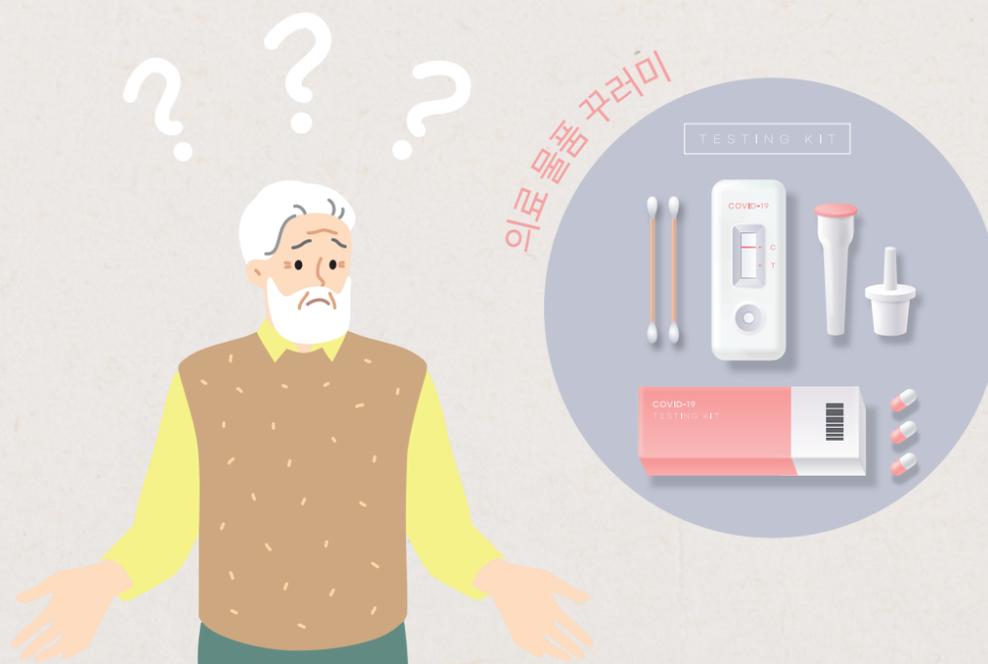
첫 번째 단어는 내가 공유하려는 이번 사례 외에도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링’이다. 주민에게 나가는 안내문에도 ‘모니터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우리가 민원인에게 설명할 때도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 ‘모니터링 전화나 문자가 갈 것’이라고 안내하고는 했다. 설명하는 사람은 한정적인데, 코로나 환자부터 접촉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우리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영어 공용화 시대에 당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곤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모니...? 무슨 전화를 한다꼬?”라고 하시며 되묻곤 하셨다.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전체적으로 기력이 약하시니,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처음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한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 우리가 바쁜 걸 기사로 많이 접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해 되물을 때면 연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땐 내가 먼저 “저희가 전화로 괜 찮으신지 관찰해 드린단 뜻이에요!”하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불안 대신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남아있다.



두 번째 단어는 ‘키트’다. 위중증 환자가 아닌 그 외의 환자분들은 재택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었다. 재택 치료 담당자분들이 체온계, 코로나 진단 도구 등을 구성하여 환자분들께 보내드렸던 적이 있었다. 재택 치료에 관한 안내가 나가기 전 역학조사 및 접촉자들에 대한 정보를 묻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은 나와 먼저 연락이 닿아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어보시곤 했다. 집에만 계시기도 하고 주변인들에게 들었던 경험들이 있으니 체온계는 오는지, 다른 걸 지원해주진 않는지 물었지만 우린 간단하게 ‘키트’가 나간다고 뚱뚱 그려 말씀드렸다. 어르신들에게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배려가 조금 부족한 단어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이해하지 못하실 땐 하나하나 어떤 물품을 지원해드리는지 설명해드렸지만, ‘키트’라는 외국어 대신 ‘의료 물품 꾸러미’로 보내 드린다고 정감 가게 표현했다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다.

마지막으론 앞서 말한 두 단어처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의료 용어에 대해서도 짧게 말하고 싶다. 전문 용어이긴 하나, 우리말로 풀어쓸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준다면 생소한 단어를 듣는 상대방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의료 쪽 전공이 아니어서 설명하는 나도 많이 당황스러웠기에 더더욱 듣는 상대방 처지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의료 쪽 용어들은 내가 먼저 찾아 우리말로 대체해 설명해드렸다. ‘앰블런스’를 구급차로, ‘환자 히스토리’를 ‘간호력’으로, ‘디엔알(DNR)’을 ‘소생술 포기’로 들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대체했더니 긴박한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 잘 됐다. 사소한 배려를 느끼셨는지 한 어르신은 “노인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셨다. 힘든 하루 속에서 눈물 나는 한마디였다.

젊은 나도 생소한 단어들이 많다 보니,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가 섞인 설명을 듣는 어르신들은 어떨까 하며 우리말로 된 단어를 곰곰이 생각했었다. 별거 아닌 단어 선택 하나에 상대방과 나의 하루를 다르게 행복함을 채웠다.





2023년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음슴상 @미소

외국어 공공언어,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했더라?
처음 보는 주소라 복잡한 길까지!
과연 할머니는 무사히 아들 집에
찾아갈 수 있을까요?

서울시 용산구
청라커널로
데미안첼리투스 아파트
102동 1406호



외국어가 아닌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 바꿔주세요
- 칭찬합니다
- 요청과 답변
- 공모전 당선작**
- 같이해요

버금상 @동덕여자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철장 3일:
일상생활 속 외국어 남용

철장 씨는 동기들과 함께 '헬스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들으며 득근할 생각에 행복해하는데... 이게 정말 운동하는 과목이 맞나요? 과연 철장씨의 운동... 아니 운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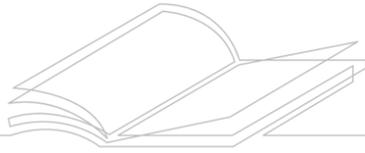


헬스커뮤니케이션
건강한 소통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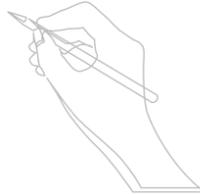
반숙 계란이 없어서요.
대신 썬니 사이드 업으로
해드릴까요?





최슬 그림

심장을 살리는 쉬운 말. 자동심장충격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서울의 출근길 지하철



그날도
별의별 일 중
하나가 일어났다.



공기까지 부족해
가스! 가스!
웁!
밀지 마세요!

짜늘하다...

다음 정차할 역은
홍제역
입니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꽃힌다.

나 잠깐 멈출게,
주인님아

긴급 상황이에요!

심장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다음 역에서
환자를
내려주세요.

내 죽음을
얼른 알려줘요.



심장을 살리는 쉬운 말 자동심장충격기

위기에 빠진 승객을 구할
생명의 시간은 4분 남짓!

심폐소생술도 소용 없지만,



전
들렸어요...

119는 아직
멀었는데.....

지하철 역사 안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

#@\$%#@#%^&을 가져와요!
어서요!

뭐라구요?

#@\$%#@#%^&?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여기서
뜻밖의 퀴즈!!







쉬우리와 함께 알아보는 쉬운 우리말!



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을 알리고 있는
귀염둥이 '쉬우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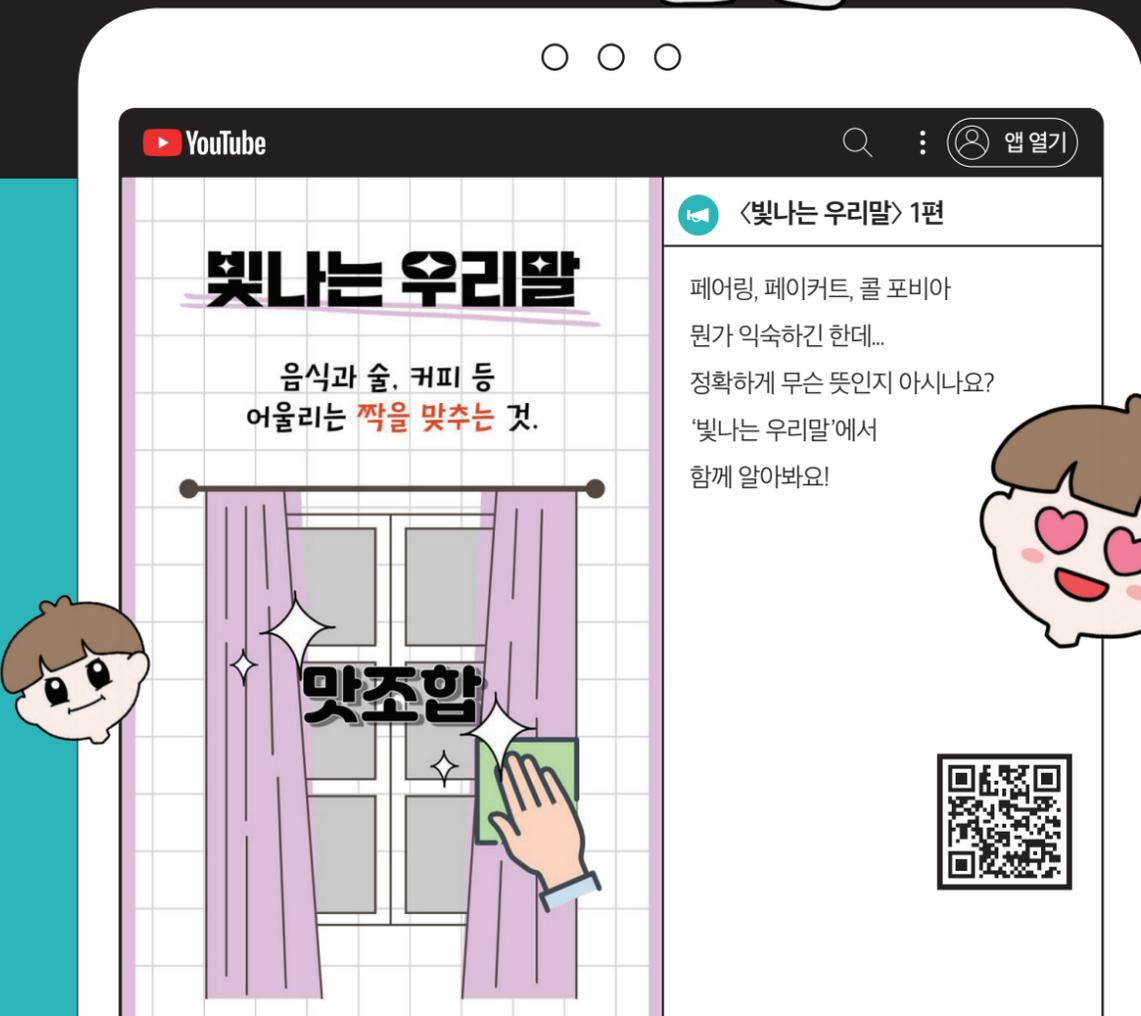


쉬운 우리말 누리소통망

@plain_korean 인스타그램

www.facebook.com/urimal2020 페이스북

blog.naver.com/urimal2020 블로그



선수가 스스로 자신의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것.



페어링 ▶ 맛조합
음식과 술, 커피 등 어울리는 짝을 맞추는 것

페이 커트 ▶ 감액계약
선수가 스스로 자신의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것

콜포비아 ▶ 통화 기피증
전화로 음성 통화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



빛나는 우리말

주방장이 만드는 특선 요리.
대부분 주방장이 엄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코스로 손님에게 낸다.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쓰자!

한글문화연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빛나는 우리말> 2편

자주 쓰는 외국어 삼총사!
정말 정확하게 뜻을 알고 있나요?
우리말로 풀어쓰면 헛갈릴 일 없이
완전 쉬워진다는데!
구경해볼까요?



메타팜 ▶ 가상농장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작황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농업 방식을 모의 실험하여 농사에 적용하는 것

오마카세 ▶ 주방특선
주방장이 만드는 특선 요리.
대부분 주방장이 엄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코스로 손님에게 낸다.

마이크로 러닝 ▶ 짤막 학습
짧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접속하여 학습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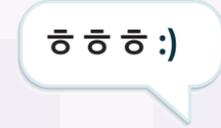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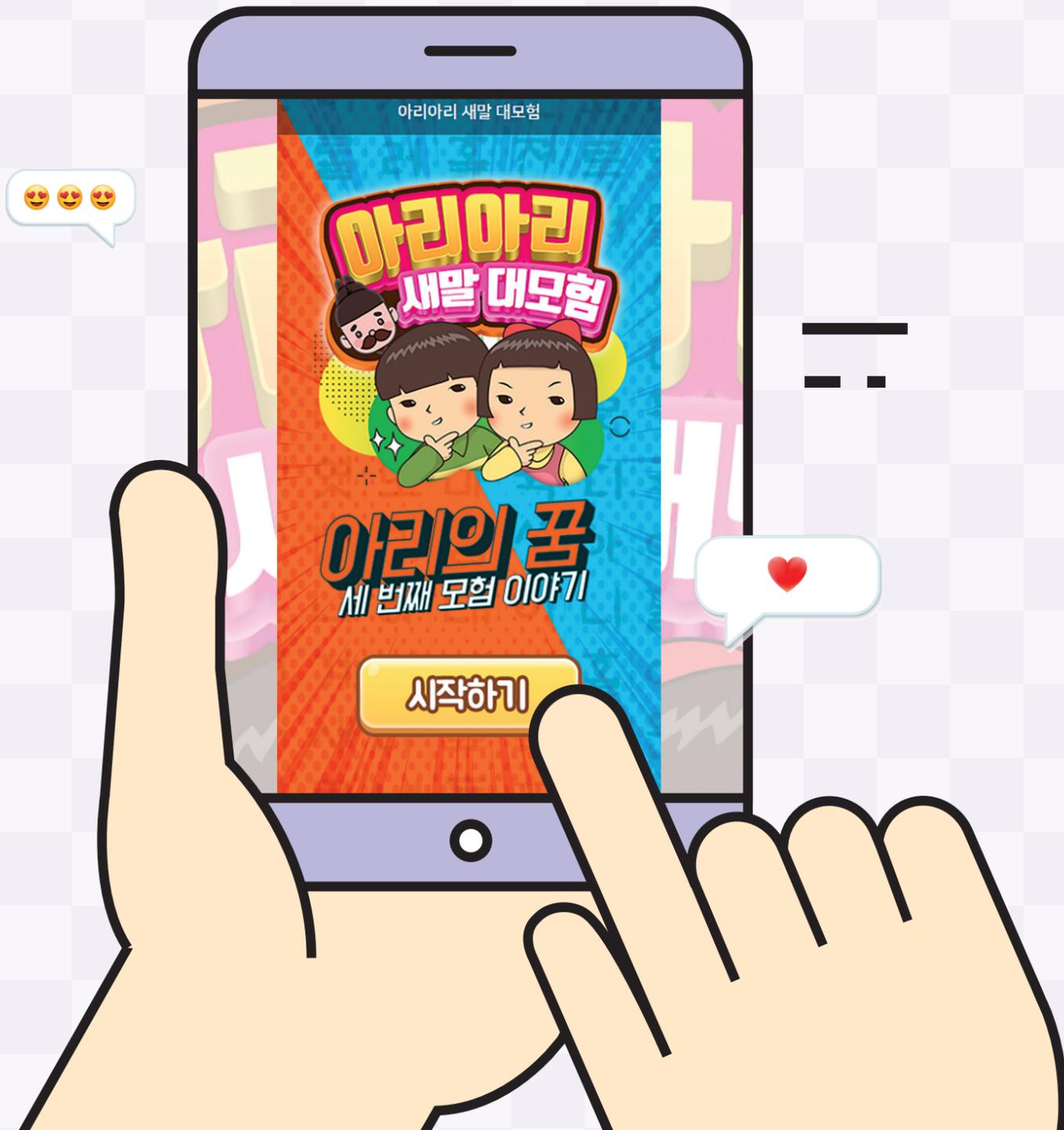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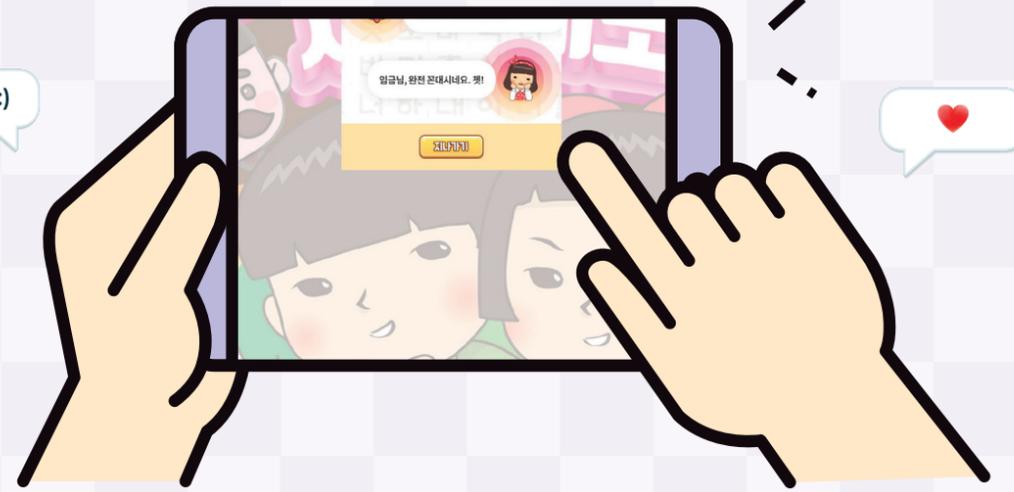
두 번째 모험도 성공적으로 마친 아리의 꿈에서 세종대왕님이 또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로마자 약칭이 극성이라며 찾아오셨다는데?!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건 도사가 된 아리!

과연 로마자 약칭도 우리말 약칭으로 아무지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리의 세 번째 새말 대모험! 함께 떠나보세요!





쉬운 한글로 쓰기, 소통과 배려의 시작



김태경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원장 / 한양대학교 (ERICA) 교수)



지난해 한 카페에서 미숫가루를 'M.S.G.R'로 표시해 논란이 된 일이 있다. 해당 카페는 미숫가루뿐 아니라 여의도 커피를 'Yeuido Coffee', 앙버터를 'Ang Butter'로 표시하는 등 메뉴판 전체를 로마자로 써 놓은 상태였다. 한글 설명 없이 로마자로만 표시한 메뉴판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처럼 메뉴판에 로마자만 적어 놓는 세태에 대해 "영어로 써놓고는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는다."라며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영어 메뉴판을 쓰는 것이) 허세만 가득해 보인다.", "영어로 쓰면 있어 보이냐" 등 공감하는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이러한 로마자 표기 남용은 메뉴판에 국한하지 않는다. 아파트 이름, 상점 간판, 제품 이름(화장품명이 대표적인), 유명 호텔과 대기업 누리집의 항목들 대부분이 영어

로 표시되어 있다. 영어를 읽지 못하면 호텔 예약이나 제품에 대한 문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일상생활 영역에서 로마자 표기가 남용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을 사실상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55~64세는 90.3%, 65~79세는 48.8%만이 영어 학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저학력자와 저소득자일수록 영어 학습 경험이 적었다. 다시 말해, 한글 병기 없이 로마자로만 간판이나 제품명을 적음으로써 알게 모르게 이들을 정보로부터 소외시키고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에서는 2023년 '경기도 국어 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문화중무과와 협업하여 수원시와 안산시의 4개 구를 대상으로 옥외 광고물 언어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경기도 내 옥외 광고물(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공연 간판, 옥상 간판, 지주 이용 간판 등) 2,042개 간판에 사용된 문자를 조사한 결과, 한글 간판은 전체의 1/4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외국 글자 중에서는 로마자가 단연 가장 많았으며, 그 중 로마자 약어도 20%가 넘었다.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Have it store', 'D.MMELIER', 설명까지 영어로 적힌 '2DOLLARS COFFEE - JUNBO SIZE 2SHOT', 아예 간판 전체가 영어로 표시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이에 더해 '컷트'(바른 표기는 '컷트'), '밧데리'(바른 표기는 '배터리') 등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기는 했으나,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게 쓴 간판도 부지기수이다.



이처럼 곳곳에 외국 글자와 잘못 쓴 외래어 간판이 즐비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지만 면적 5㎡ 미만이거나 건물 3층 이하에 표시된 간판은 한글 표기가 없어도 과태료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에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간판 등 옥외 광고물 언어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개선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경기도는 올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에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시범적으로 간판 교체를 지원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제15조의2(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6.]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간판 등 옥외 광고물 표기를 개선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므로, 단기간 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적 조치는 단순히 제재의 차원을 넘어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부터 나서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와 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자랑스러워하고 한글 사용을 당연하고 품격 있는 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의 언어 환경은 저절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저건 무슨 뜻이에요?"...아이가 가리킨 카페 간판엔



인천일보 2023. 10. 06. 1면 기사 갈무리 화면

여주역 'G 주차구역'을 우리말로 개선하다

신수호(우리말가꿈이 지도위원)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네 기수에 걸쳐서 우리말가꿈이로 활동한 선배 기수 사이에서 흔히 '뼈곰이'로 불렸다. 우리말가꿈이 활동이 너무 잘 맞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일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가꿈이 시절 KISS & RIDE라는 역 근처에 있는 뜻 모를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활동을 주로 했다.

우리말가꿈이 17기 시절 2019년 9월 27일 여주역에 KISS & RIDE라는 표지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에 가보니 대문짝만하게 KISS & RIDE 표지판이 있어서 촬영을 하고, 이런 로마자 표기를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 공문과 민원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주차장에도 'G'라고 로마자로 크게 적힌 구역이 보여 의문을 가졌었다. 여주는 특히나 세종대왕릉이 있어 한글 도시라고 홍보를 하며 '여주한글시장'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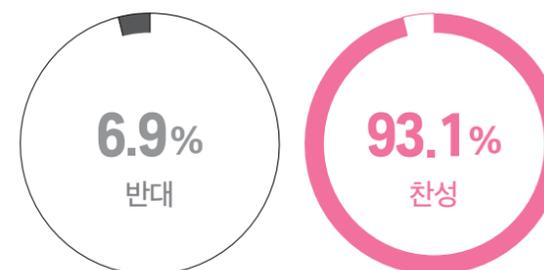
하고 있는데, 여주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역에서부터 로마자 표기가 있는 것이 의아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여주시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자 "그린카 대여·반납 구역이라서 G라고 표시했을 것"이라며 말을 줄였다. 실제로 다른 도시에서도 해당 업체의 반납 공간에 로마자 G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가보다'하고 지나쳤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 우리말가꿈이가 아닌 우리말가꿈이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이 지나고 나서 우리말가꿈이가 2020년 이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았다. 비단 이런 대외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의 활동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에 가꿈이로 활동할 당시 문화방송의 한 글날 특집 다큐멘터리에 나왔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고 성과가 좋았던 KISS & RIDE를 우리말로 개선한 활동을 보여

주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곤 한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꾼 사례가 꽤나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실제로 2023년 우리말가꿈이 25기 '뽀로로 모뎀'은 여주역의 'G 주차구역'에 관심을 가졌고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G 주차구역'은 2019년 당시에 전해 들었던 '그린카 구역'이 아니라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북」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일시적 부상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G 주차구역'을 설치했고 우리말가꿈이 25기 뽀로로 모뎀이 도착해서 확인한 결과, 정체를 알 수 없는 'G 주차구역'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뽀로로 모뎀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G 주차구역 개선 시민 설문조사와 대체어 공모전'을 진행했고 102명의 설문자 중 93.1%가 'G 주차구역'이 우리말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함께 진행한 공모전 결과, 1등은 '배려주차구역', 공동 2등은 '양보 주차구역',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등이 선정되었다.

G 주차구역 명칭 변경 설문 조사 결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여주시에 설문조사 결과와 'G 주차구역'을 '배려주차구역',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등으로 표기하고 주차장 바닥의 외국문자 표기를 바꿔 써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우리말가꿈이 대학생들은 국민신문고로 민원도 함께 신청하였다. 지난 KISS & RIDE 때와 비슷하게 민원 담당 부서를 찾아가기까지 4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답장이 오기까지 10일이 걸렸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온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여주에서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주차장을 전체 점검하여 2~3주 사이에 경강선의 모든 주차장을 재도색할 예정이고 그때 'G 주차구역'도 우리말로 변경하겠다."



'G'라고 표기되어 있는 주차구역



'교통약자 전용'이라고 바뀐 주차구역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여러 기수가 수료하는 동안 많은 모뎀의 활동이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오랜만에 일상에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든 답변이었다. 과연 여주역의 'G 주차구역'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살펴 보러 갔다. 로마자 'G'는 '교통약자 전용'이라는 한글로 바뀌어 있었고,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그림을 함께 그려 넣었다.

실제로 바뀌기 전에는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을 우리말가꿈이 대학생들은 "우리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활동이 되었고, 우리말을 지키는 활동이 되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건 국수주의 같은 편협한 의도가 아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일 뿐이다. 우리말가꿈이는 앞으로도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힘쓸 것이다. 🌟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 쓰는 기자 16명 선정



2023년 12월 5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1회 <쉬운 우리말 기자상> 시상식이 열렸다. 지난 6월부터 한글 문화연대는 언론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507명의 기자에게서 의견을 받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외국어 용어 60개를 선정하였다. 이 외국어 용어들 대신 우리말로 바꿔서 쓴 기사를 수집하여 우리말로 잘 사용한 기사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였다.

상을 받은 기자는 총 16명이며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방송 분야 4개 분야에서 으뜸상(전체 1명), 가운상(각 분야 1명), 보람상(각 분야 1명), 복돋움상(각 분야 2명)을 뽑았다. 예비 심사에서는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한 횟수와 비율 등을 정량으로 측정하였고, 심사위원단 7인을 꾸려 정성 평가를 거쳤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으뜸상: 임지선(한겨레신문)
- 가운상: 김진명(내일신문), 김용훈(헤럴드경제), 김용택(중도일보), 김중호(와이티엔)
- 보람상: 김아영(내일신문), 김원준(파이낸셜뉴스), 박보성(충청일보), 손원혁(한국방송)
- 복돋움상: 최연진(한국일보), 이서희(한국일보), 박희윤(서울경제), 김예나(한국경제), 조경건(부산일보), 홍민기(와이티엔), 노준철(한국방송)



경제일간지 분야 시상



방송 분야 시상



으뜸상 시상



시상식 단체 사진



전국일간지 분야 시상

다음은 심사위원장 이경우(서울신문 기자)의 심사평 전문이다.

[심사평]

세상에,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쉬운 말을 쓰는 기자에게 상을 주는 일도 생겼습니다. 저도 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왔는데, 정말 만들어졌습니다. 쉬운 말로 쓰는 건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쇼펜하우어도 그랬더군요. “쉬운 글쓰기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요.

“이 상을 내가 왜?”라는 반응을 보인 수상자가 적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자격, 충분합니다. 어떤 상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상입니다. 아마 쇼펜하우어도 칭찬했을 겁니다. 크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 일을 지난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1월까지 여섯 달 동안 후보가 될 만한 기사들을 매주 모았습니다. ‘스크린도어/안전문’, ‘원원/상생’, ‘이커머스/전자상거래’, ‘AI/인공 지능’, ‘허브/거점·중심’ 등이 중요 도구였습니다. 기자 507명이 참여해 이 정도는 바꿔 써야 한다고 판단한 집중개선 대상 용어입니다. 이렇게 모은 거대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량평가로 후보자를 정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최종 심사의 큰 원칙은 국어기본법 준수입니다. 이 법 제14조 1항에는 “공공기관 등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두고 기자들이 선정한 용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려고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외국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썼는지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언론 언어, ‘저널리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느냐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널리즘’이란 용어는 혼합니다. 곳곳에서 저널리즘의 신뢰를 말하고, 현재의 저널리즘을 비판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원칙을 설파합니다. 그렇지만 ‘저널리즘

언어’라는 용어는 거의 유통되지 않습니다. 저널리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널리즘 언어’에 대해 적극 말해야 합니다. ‘저널리즘 언어’의 첫 번째 원칙은 ‘쉽게 쓰기’였습니다. 오늘 수상자들은 이미 ‘저널리즘 언어’에 대해서도 기사를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외국어 안 쓰고, 로마자도 안 쓰고, 그래서 더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한다는 게 신문사 지침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그대로 심사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내일신문, 한국일보, 와이티엔에서 각각 2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가 아니라 데스크가 수정을 잘한 기사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감안해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한겨레 임지선 기자, 내일신문 김진명·김아영 기자, 한국일보 최연진·이서희 기자, 헤럴드경제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원준 기자, 서울경제 박희윤 기자, 한국경제 김예나 기자, 중도일보 김용택 기자,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부산일보 조경건 기자, 와이티엔 김중호·홍민기 기자, 한국방송 손원혁·노준철 기자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기사로서 틀을 잘 갖췄고, 문장도 매끄럽고, 표현의 일관성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쉬운 표현은 곧 독자와 시청자에게 더 다가가는 노력이었습니다. 일상의 말로 독자, 시청자와 소통하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한겨레 임지선 기자는 기자들이 선정한 쉬운 말, 대체어를 잘 활용한 것은 물론 쉽고 친절한 언어를 적극 사용했습니다. 시가 아니라 ‘인공 지능’이라고 표현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기자의 언어가 아니라 독자의 언어라고 하겠습니까. 돋보였습니다.

수상자 여러분 모두 ‘저널리즘 언어’ 향상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널리즘의 언어는 무기입니다. 더 잘 사용해 질 높은 저널리즘이 되는 데 더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일간지 분야 시상



기관 누리집에 '쉬운 우리말 사전' 무료로 설치하세요

바꿔 써야 할 외국어 단어와 대신 쓸 수 있는 쉬운 우리말 제공 공개 에이피아이를 사용하거나 누리집 내 창으로 설치하여 활용



'쉬운 우리말을 쓰자'(www.plainkorean.kr) 누리집에서는 '쉬운 우리말 검색' 공개 에이피아이를 제공한다. 공공언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를 활용하여 기관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쉬운 우리말 사전'과 '외국어 검사기', '쉬운 우리말 도우미(채팅 로봇)'을 기관 누리집에 그대로 불러와서 활용할 수도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를 활용하거나 쉬운 우리말 도구를 기관 누리집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한글문화연대(urimal@urimal.org)로 문의하면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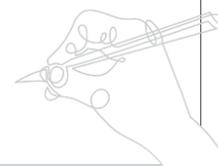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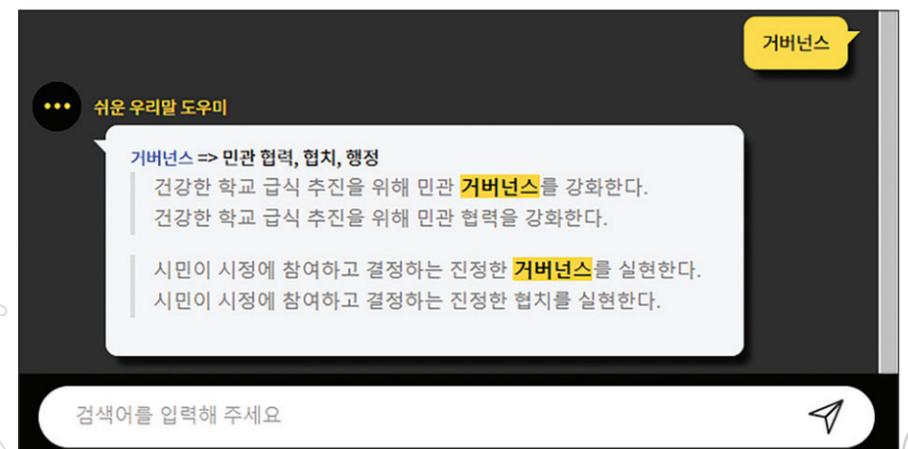
쉬운 우리말 사전으로 바꿔 써야 할 외국어와 우리말 대체어를 찾을 수 있다.



외국어 검사기로 문장에 외국어를 남용하지 않았는지 손쉽게 검사할 수 있다.



쉬운 우리말 도우미(채팅 로봇)로 우리말 대체어와 예문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신조어를 대체할 우리 새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외래 용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달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제공하는 일이다. 새말모임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어 신조어의 의미와 쓰임새 등을 검토하고 선정하여 새로 다듬은 말을 발표한다. 이 말은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론조사도 거친다.

'캔슬 컬처'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등돌림 문화'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또한, 이미 굳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한 '오마카세'같은 단어도 '주방 특선' 등으로 다듬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힘쓰고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의 '공공언어 개선' 다듬은 말'이나,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plainkorean.kr)의 '쉬운말>새말' 화면에서 발표된 우리 새말을 확인할 수 있다. 🌸

※ '새말모임'이란 어려운 외국어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어, 언론, 문학, 정보통신, 환경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대상어(원어)	다듬은 말	의미
1 뱅크 런(bank run)	인출 폭주	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
2 그린 오션(green ocean)	친환경 시장	친환경이 가진 가치를 경쟁 요소로 내세워 새로운 시장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3 로크인 효과, 록인 효과(lock in effect)	자물쇠 효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
4 chilling 이펙트(chilling effect)	위축 효과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말과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
5 머니 무브(money move)	자금 이동	낮은 금리 등의 이유로 자산이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 자산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채권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
6 캔슬 컬처(cancel culture)	등돌림 문화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인사가 논쟁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지지(follow)를 취소하고 거부하는 현상.
7 본드 런(bond run)	채권 매도 사태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채권을 파는 현상.
8 콜키지 프리(corkage free)	주류 반입 무료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개인이 가지고 온 주류를 개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잔 따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르는 말.
9 율드(YOLD ← young old)	청노년	주로 노령기에 접어든 베이비 붐 세대로 이루어진 65세부터 75세 사이의 노인층을 이르는 말.
10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11 뱅크데믹(bankdemic ← bank pandemic)	은행 불신 확산	은행에 대한 공포가 감염병처럼 급속하게 번진다는 뜻.
12 웰다이잉(well-dying)	품위사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13 무라벨(無label)	무상표	상품 정보나 상표 따위가 표시된 라벨이 없음.
14 어닝 쇼크(earning shock)	실적 충격	기업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경우 시장에서 받게 되는 충격. 또는 이로 말미암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15 페어링(pairing)	맛조합	음식과 술, 커피 등 어울리는 짝을 맞추는 것.
16 페이 컷트(paycut)	감액 계약	선수가 스스로 자신의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것.
17 콜 포비아(call phobia)	통화 기피증	전화로 음성 통화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
18 메타팜(metafarm ← metaverse + smartfarm)	가상 농장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작황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농업 방식을 모의 실험하여 농사에 적용하는 것.
19 오마카세(omaka[御任]se)	주방 특선	주방장이 만드는 특선 요리. 대부분 주방장이 엄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코스로 손님에게 낸다.
20 마이크로 러닝 1(micro learning)	짧막 학습	짧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접속하여 학습하는 형태.
21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22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1인 가구 경제	일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
23 마이크로 러닝 2(micro learning)	단기 학습	적은 단위로 응축된 교육 과정.
24 이지 머니(easy money)	저리 자금	자금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원활하여 자금 조달이 쉬운 상태를 이르는 말.

대상어(원어)	다듬은 말	의미
25 메가 딜(mega deal)	초대형 거래	주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규모가 매우 큰 거래.
26 세이브케이션(savecation)	알뜰 휴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기려는 경향.
27 버티포트(vertiport ← vertical flight + port)	수직 이착륙장	기체가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정거장 또는 터미널.
28 슬로 패션(slow fashion)	친환경 패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옷의 생산 및 소비 속도를 늦추는 패션 경향.
29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30 비거노믹스(vegan economics)	채식 산업	점차 커지고 있는 채식 시장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르는 말.
31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허위 생성	인공 지능이 거짓이거나 맥락과 관련없는 내용을 생성하는 것.
32 셔틀 외교(shuttle 外交)	왕래 외교	갈등이 있는 양국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제3자 또는 제3국을 활용하는 외교 방식.
33 아트 테크(art tech)	예술품 투자	예술 작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 주로 작품을 구입한 후 뒤팔아 이익을 남기거나 저작권으로 수익을 올린다.
34 메타노믹스(metanomics ← metaverse+economics)	가상 세계 경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경제 현상.
35 에듀 푸어(education poor)	교육 과소비층	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가난해져 살기가 어려운 계층.
36 실버 푸어(silver poor)	노년 빈곤층, 노후 빈곤층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해, 퇴직 후 바로 빈곤층에 진입하는 사람. 또는 그런 세대.
37 베타 테스트(beta test)	출시 전 시험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에 실시하는 실험.
38 필드 테스트(field test)	실사용 평가	실용화된 간단한 집단 실사용 실험.
39 소셜 본드(social bond)	사회 가치 채권	자금 조달의 목적이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 가치 창출 사업을 위한 채권.
40 프리패브(prefab)	사전 제작,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하여 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41 메가 오퍼(mega offer)	초고액 제안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인기 선수를 영입하는 방식.
42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맞춤 색상	개인이 가진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 사용자에게 생기가 들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는 이미지 관리 따위에 효과적이다.
43 클린 하우스(clean house)	쓰레기 수거장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내놓도록 만든 시설.
44 리커머스(recommerce)	재거래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거래하는 제품 판매 전략. 새로운 상품을 살 때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판매와 일정 기간 후 새로운 상품으로 바꿔 주는 교환 판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45 메디 푸드(medi food)	의료식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 개선과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먹는 식품.
46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	고령 친화 기술	고령자를 위한 첨단 과학 기술.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이른다.
47 킥 이코노미(gig economy)	일시 고용 경제	산업 현장에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임시직·일용직 따위를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경제 형태.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단시간에 연주자를 구해 공연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48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철통 인증	사용자·네트워크·기기 따위의 모든 인터넷 환경이 잠재적으로 바이러스나 패킹 따위의 외부 침입이나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모델. 모든 데이터, 통신, 접근 사용자 따위를 감시하고 적절한 인증 절차 없이는 접근을 통제한다.
49 프리 플로팅(free floating)	자유 주차 방식	탈 것을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닌 불특정장 장소에서 빌리고 반납하는 방식.
50 트래블 테크(travel tech)	여행 정보 기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숙박, 레저, 교통, 식음료, 언어 등 여행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51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	노동 외 소득	돈을 벌기 위하여 노동이나 사업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득. 일단 수익 구조를 만든 다음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기업 배당금 따위가 있다.
52 메가스테이션(megastation)	복합 충전 시설	전기·수소 충전소와 대형 쇼핑몰 등이 입점된 복합 시설.
53 리드 타임(lead time)	납품 소요 시간	물품의 발주로부터 그 물품이 납입되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54 샌크추어리(sanctuary)	동물 보호 구역	생존을 위협받거나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구역.
55 뷰잉 파티(viewing party)	단체 시청 행사	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경기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응원하는 행사.
56 테크니컬 투어(technical tour)	산업 현장 탐방	특정 주제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것.
57 킬러 아이템(killer item)	핵심 상품	우선순위가 높고 핵심적인 상품.
58 큐싱(Qshing ← QR code phishing)	큐알 사기	금융 사기 수법의 하나. 큐알 코드를 통해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하거나 악성 코드를 심어 개인의 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나 자금 이체 등으로 돈을 빼 간다.
59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다방면 인재	모든 분야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60 애그테크(agtech ← agriculture+technology)	첨단 농업 기술	농업 기술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드론 등의 아이티 기술을 접목한 기술.
61 매치 메이킹(match makig)	상대 결정	대회나 사업 등에서 상대방을 정하는 일.
62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 이전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아웃소싱.
63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우호국 이전	우호국이나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2023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대상어	원어	다음은 말	예문
1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유초중고에 AI → 인공 지능 과목을 신설해 2025년부터 본격화한다.
2	AI	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 정부가 겨울 철새 이동을 앞두고 AI →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대비에 나섰다.
3	AR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AR → 증강 현실 평화의 소녀상이 개발됐다.
4	ASF	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으로 돼지고기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
5	BRT	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체계) 세종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 → 간선 급행 버스 도로가 조성돼 굴절버스가 다닌다.
6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사회 가치 경영, 환경·사회·투명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 사회 가치 경영 이 부각되고 있다.
7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 → 자유 무역 협정 을 체결했다.
8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약 업계에서 의약품 GMP →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위반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9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달부터 햄·베이컨에도 HACCP →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 적용된다.
10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 통신 기술 청년들의 열정과 첨단 ICT → 정보 통신 기술 로 농촌이 바뀌어 간다.
11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돌봄과 IoT →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12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지식 재산(권)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IP → 지적 재산 분쟁 대응을 돕는다.
13	IR	Investor Relations	기업 투자 설명회 신산업 증가에 따라 IR → 기업 투자 설명회 전문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14	IT	Information Technologies	정보 기술 르네상스 걸작과 IT → 정보 기술 의 만남, '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전'이 열린다.
15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업무 협정, 업무 협약, 양해 각서 세계녹색성장기구는 기획재정부와 MOU → 업무 협약 을 맺었다.
16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 디지털 증서 풍속화 30점을 하나씩 NFT → 대체 불가 토큰 으로 발행하여 판매한다.
17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의료 취약국을 위해 보건 의료 분야의 ODA → 공적 개발 원조 도 계속 확대한다.
18	OTT	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19	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수단 이륜차 및 PM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20	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감염병특별위원회가 국가 감염병 R&D → 연구 개발 추진 체계를 고도화한다.
21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업무 처리 자동화 통지서 발송 업무에 RPA → 업무 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22	SNS	Social Network Service	누리 소통망, 사회 관계망 SNS → 사회 관계망 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23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 SOC → 사회 기반 시설 의 핵심인 신공항 건설로 경제를 살린다.

대상어	원어	다음은 말	예문
24	TF	Task Force	전담반, 전담 조직 아동 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TF → 전담반 을 구성해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25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교통 인천시가 UAM → 도심 항공 교통 특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전망이다.
26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게임하듯 VR → 가상 현실 로 실습하고 화상 수업한다
27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시대, WHO → 세계보건기구 가 제안한 새로운 지침을 알아본다.
28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호주가 중국의 관세 폭탄에 강력 반발해 WTO →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시사했다.
29	XR	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 공공·민간 분야의 XR → 확장 현실 , 서울 인터넷 등 대형 사업에 투자를 지원한다.
30	거버넌스	Governance	민관 협력, 협치 거버넌스 → 민관 협력 을 통한 마을 만들기와 발전 방안
31	디지털트윈	Digital Twin	디지털 복제, 디지털 복제물 디지털트윈 → 디지털 복제 로 가상 공간에 우리 국토를 구현해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
32	로컬	Local	지역, 현지, 지방 로컬 → 지역 에 밀착한 문화 정책을 기대한다.
33	리빙 랩	Living lab	생활 실험실, 살아 있는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 주민들이 혁신 기술을 체험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리빙랩 → 생활 실험실 이 문을 열었다.
34	마스터플랜	Master plan	종합 계획,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신도시 건설엔 무엇보다 마스터플랜 → 기본 계획 이 중요하다.
35	매칭	Matching	맞춤, 연결, 연계, 대응 언골 인식부터 간병인 매칭 → 연결 까지
36	모멘텀	Momentum	① 동력, 추동력 ② 전환 국면 양국이 대화의 모멘텀 → 동력 을 유지하고, 지속하기로 한 것은 희망적이다.
37	모빌리티	Mobility	이동 수단, 탈 것 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 이동 수단 서비스가 일상화된다.
38	아카이브	Archive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 항만 개발과 시설 현대화 과정 등 해양 역사를 아카이브 → 기록 보관소 로 구축한다.
39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	새싹 기업 육성 기관, 창업 초기 기업 육성 기관, 창업 기획자 해외 현지 엑셀러레이터 → 창업 초기 기업 육성 기관 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40	엑셀러레이팅	Accelerating	육성, 창업 기획 관광 산업 분야의 엑셀러레이팅 → 창업 기획 , 금융 지원, 성장 지원 등 단계적 지원을 한다.
41	어젠다	Agenda	의제, 가치관 탄소 중립은 이제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 → 의제 가 되었다.
42	워킹 그룹	Working group	실무단, 실무 협의단 코로나19 금융 상황 점검 워킹 그룹 → 실무단 을 만들었다.
43	인프라	Infrastructure	기반, 기반 시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 복지 인프라 → 기반 을 확충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44	컨소시엄	Consortium	협력체, 연합체, 협력 모임 산·학·연 215개 기관이 컨소시엄 → 협력체 를 구성해 국가 인공 지능 역량을 높인다.
45	키오스크	Kiosk	무인 안내기, 무인 단말기, 무인 주문기, 간이 판매대, 간이 매장 식당, 기차역, 버스 정류장, 휴게소에도 키오스크 → 무인 주문기 가 대중화되고 있다.
46	킵오프 회의	Kick off	첫 회의, 첫 기획 회의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의 킵오프 회의 → 첫 기획 회의 가 열렸다.
47	테스트 베드	Test bed	가능터, 시험대, 성능 시험장 국내 첫 12인치 반도체 테스트 베드 → 가능터 구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
48	핀테크	Fintech	금융 기술, 금융 기술 서비스 핀테크 → 금융 기술 기반의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개발했다.
49	핫라인	Hot line	직통 창구, 직통 회선, 직통 전화, 비상 직통 전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급 핫라인 → 직통 회선 개선을 추진한다.
50	허브	Hub	거점, 중심, 중심지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창업 허브 → 거점 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말글 교육, 국어 관련 상담, 공공문장 감수 등 공공언어 사용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소재지
국립국어원	1599-9979	서울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033-250-8137	춘천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53-950-7497~8	대구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055-772-0768	진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044-860-1910	세종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051-200-7179~7180	부산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061-450-6271	무안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041-550-5391	천안
세종 국어문화원	02-735-0991	서울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67-0861	안양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53-810-3561, 3628	경산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052-259-1911	울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02-3277-3250	서울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032-860-8394	인천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62-530-0313	광주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3-220-3095	전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4-754-2712, 2738	제주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29-8311	청주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61-3450	청주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02-781-3838	서울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02-780-5084	서울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42-629-7474	대전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00-4513	안산
국어문화원연합회	02-2669-9605	서울

독자 의견 청취 행사

국민 모두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연대와 <쉬운 우리말을 쓰자>가 항상 함께하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1. 한글문화연대가 발간하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를 읽고 난 소감을 적어주세요.
2. 이번 겨울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3. 앞으로 <쉬운 우리말을 쓰자>가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을호 독자 의견 당첨자 | 박ㅇ석 010-0000-3036 이ㅇ지 010-0000-9688 서ㅇ희 010-0000-4964
강ㅇ우 010-0000-6272 최ㅇ선 010-0000-5573

휴대전화 독자 의견 청취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빠르고 간편한 <쉬운 우리말을 쓰자> 참여방법

- 휴대전화에서 검색창(네이버, 다음 등)을 열고 정보무늬(QR) 접속창을 연다.
- 접속창을 연 상태에서 소식지에 삽입된 정보무늬(QR)를 촬영한다.
- 소식지에 관한 다양한 독자 의견 청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기면 참여 완료.



우리말 책소개

우리 말글 상식, 글쓰기, 공공언어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언어는 인권이다

피어나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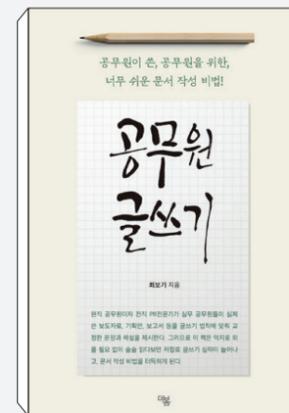
우리 시대에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책. 국어운동 중심에 섰던 저자는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임을 강조한다. 공공언어를 다루는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 사회지도층, 민주시민을 위한 필독서다.



공공언어의 사회철학

피어나 | 25,000원

국민의 안전과 재산, 권리와 의무, 기회와 위험 등을 다루는 공적 정보가 담긴 말, 즉 공공언어가 어떤 사회철학 위에서 쓰이면 공공성이 높아지고 공동선에 다가갈 수 있는지 살펴본다.



공무원 글쓰기

더봄 | 18,000원

현직 공무원이자 유명 북칼럼니스트 최보기 작가가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보고서의 단문 및 장문(공지, 보도 자료, 인사말, 연설문, 기고문, 누리소통망)을 간결·명료하게 쓰는 문장비결을 담은 <공무원 글쓰기>를 펴냈다. 일선 공무원들이 쓴 원문과 저자의 교정문, 해설을 붙였다.





한글문화연대

<https://www.urimal.org>



9 772951 011008 3 4
ISSN 2951-0112(34)